

「국제보건의료학회」창립 취지문

최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 또한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차지하는 중요성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공적개발원조와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분야로, 이는 한국과 다른 선진국이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의 비중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 과정에 참여하는 국가와 개인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국제보건의료의 이론과 실천은 비단 국제개발협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국제화와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건강수준과 건강문제, 보건의료정책, 국제관계,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제보건의료는 한국 보건의료의 새로운 과제이자 도전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제보건의료는 초창기 ‘개척’의 시기를 거쳐 발전과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더해지고 다양한 사업이 시도되고 있는 때에, 국제보건의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고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바로 그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다양한 연구자, 전문가, 정책 담당자, 현장 실무자 등이 모여 국제보건의료를 같이 공부하고 논의할 학회를 창립하려고 합니다. 학회의 본령인 연구와 이론적인 탐구는 물론,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다양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사업으로 삼을 것입니다. 「국제보건의료학회」는 이런 과제들을 수행할 중요한 틀이자 유용한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학회가 연구, 교육과 훈련, 정책 등의 분야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 수준에서 교류하면서 국제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전문가, 시민사회의 활동가, 학생 등 다양한 당사자들이 모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창립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3월

「국제보건의료학회」 창립준비위원회 드림

(명단 별첨)

권순만(서울대 보건대학원), 권호근(연세대 치대), 김각균(서울대 치대), 김경희(고려대 보건대학원), 김나연(국경없는 의사회 일본지부), 김대중(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소윤(연세대 의대), 김억((사)아프리카 미래재단), 김의숙(연세대 간호대),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춘배(연세대 원주의대), 남은우(연세대 보건행정학과), 박상은(한국의료민간단체협의회), 박용준((사)글로벌 케어), 박현애(서울대 간호대), 백남선(국제백신연구소), 서경(연세대 의대), 서원석(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손명세(연세대 보건대학원), 손애리(삼육대 보건관리학과), 신나미(고려대 간호대), 신좌섭(서울대 의대), 신혜정(삼성경제연구소), 안규리(서울대 의대), 오승민(가톨릭대 의대), 오은정(전 KOICA), 오희철(연세대 의대), 용태순(연세대 의대), 유병욱(순천향대 의대), 윤영욱(인구보건복지협회), 이기효(인제대 보건대학원), 이무식(건양대 의대), 이석구(충남대 의대), 이수경(인하대 식품영양학과), 이재갑(한림대 의대), 이종구(서울대 의대), 이현경(연세대 간호대), 이훈상(한국국제협력단), 임병목(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정혜주(고려대 보건행정학과), 조인성(경기도의사회), 조희연(삼성서울병원), 최승훈(한국한의학연구원), 최재욱(고려대 보건대학원), 한희정(G-HANDS), 홍성태(서울대 의대), 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나다순)